

### 120萬의 親睦

김남석 회원(강원 경우회장)



경우회원 중에는 생년 월 일과 주소 성명 뿐이고 계급이 없다. 계급 조직의 모임인

한다. 청사가 비좁아 지방청사에서 나왔다. 그러나 우리 사무실은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웃음의 소리가 항상 가득한 곳이다.

주 5일 근무 제도를 앞서 실시해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는다. 가업을 일으킨 후, 연료하여 버림받은 머슴 신세 같은 처지가 된 회원은 모임 곳도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다. 회원들이 사무실을 찾아와서 몇 시간 동안 즐겁게 농담도 하고 장기 바둑도 놓고 재미있게 놀다 가는 것이 정례화 되었다. 그 모이는 분의 전 계급은 각각각색이다. 다만 나만 비슷하며, 농담도 할 수 있는 나이다. 그래서 그분들은 토요일을 기다린다.

경찰청사 내의 사무실은 한계가 있다. 법을 집행하는 긴장된 사무실에서 장기바둑 등 기박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없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회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며 겨우 알았다. 그래서 자체 회관을 준비해 작년(辛年)인 80세의 노년층, 경우회의 장년층인 70대, 경우회의 가장 젊은 층인 60대와 전 의경 출신도 부담 없이 모임 수 있는 휴게실을 만들려고 노력하여 2005년에는 그 가능성이 보인다.

건국 60년을 되돌아 볼 때, 혼란의 와중에서 간교한 이념의 소란을 제거하며 나라를 세우고, 한국 동남 전후군과 같이 구국의 소임을 했으며, 나라의 전통성을 지켜온 경찰이 군에 비해 중앙이나 지방의 회관이 있고 없음은 차치하고 비교 할 수조차 없이 열악하다.

이런 때에 초라한 경우회 중앙회를 교통이 편한 서울 중심부로 사무실을 옮겨, 여러 회원들이 쉽게 모임 수 있게 하였다. 사무실에는 전국 최고의 기원을 능가하는 "사랑방"도 만들어 친목단체의 대화방 역할을 다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환영한다. 이제야 같은 운명의 배를 타던 120만 회원의 진정한 친목단체가 되어 가고 있다.

에도 전(前) 계급을 기록 할 난이 없다. 계급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조선 조 500년을 질곡의 사회로 만든 반상 계급(班階階級)을 일거에 타파 하려는 기발한 발상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 하다고 생각해, 이 신분증 도안을 기쁘고 확정한 분에게 감사한다.

같은 법률조직인 재향군인회 신분증은 현역일 때의 군 계급이 있다. 그들은 계급에 따른 중요한 일을 하고,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 무력 조직이므로 당연할 것이다. 경찰은 계급에 따라 한 일의 중요도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고, 치안의 첨단 역할은 비 간부층이 대부분을 담당한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국민의 자유 재산 신체의 안전과 보호에 관련된 일이므로 그 정도의 차이를 논 할 수 없이 다 중요하다.

경우회원을 통계상 120만이라고 하나 등록회원은 그 보다 훨씬 적다. 왜 퇴직 회원이 모두 등록하지 않았을 까, 법률상 강제가 없는 임의 등록이 첫째 원인일 것이다. 또 계급조직에서 존경하지 않는 상급자이었던 분을 퇴직 후에는 대하기 싫어서 피하는 분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분은 경우회원중에 前의 계급을 기록하지 않는 참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생에서 나이의 선후배는 당연 지켜야 할 전통이다. 또 수한 역경을 감내하면서 도야(陶冶)한 인격으로 주변의 모든 이에게 덕을 베풀면 그 아니 좋은가. 그러므로 경우회원은 나이와 덕성만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원도 경우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무실을 운영

### <窓邊> 에세이



濟隱 金今道 (중앙회 부회장·前경남청장)

지난 1월 18일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 주관으로 신년 인사회가 있는 날이었다. 새해를 맞으면서 사무실도 신년동으로 이전했으므로, 회원들에게 사무실위치를 알리고 결집을 위해, 예년과는 달리 1.2부로 나눠 원로 및 역대경찰총수와 현직의 신년사 및 인사소개와 덕담, 가요무

대 등 성대한 인사회가 되었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입구에서 참석자들을 일일이 맞이했고,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연대의식을 심었으며, 회원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행사였다.

회장의 신년인사에서 앞으로 경우회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시책을 발괄 시행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심는데 신명을 바칠 것과 그 일환으로 맨

먼저 회원과의 친교를 위해 항상 열려있는 "경우 사랑방"을 개설하였음을 알려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더욱이 원로 선배님들이 들려준 덕담은 현직후배들이 새겨 들어야 할 내용도 많았다.

"요사이 정부에서 많은 포상을 하고 있는데, 그간 국가인위를 위해 노심초사 헌신, 봉사한 전직경찰에 대한 포상을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현직에서 행겨야 한다.",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려면 먼저 법을 사심 없이 제대로 집행하는 일이다.", "경우회 조직은 현직이 국민에게 무한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 는 등 다시 한번 전, 현직이 서로 이해하고 유대해야 한다는 것을 크게 깨

우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에 만난 존경하던 선배님들의 면면을 뵈고, 옛날 같지가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며, 기백이 넘치고, 당당하게 치안행정을 추진하던 그 때 그 패기를 이제는 찾아 볼 수가 없으니, 흐르는 세월을 누가 막으랴! 그 늙음하시던 선배님들의 한 세대는 이미 간지 오래고, 그 밑에서 배우고 지

도를 받은 우리들 세대도 이제는 흘러갔으며, 선배들로부터 이어 받은 그 바통을 후배들에게 넘겨주었으니, 그래도 건국, 국국, 호국의 경찰정신과 빛나는 전통만은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한번 왔다가는 나그네 같은 존재이기에 좋은 전통을 남기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흔적을 남기고 가는, 뜻 남긴 나그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신년행사를 통하여 선후배와의 만남은 "경찰에 몸담았던 우리들이 자랑스럽다"는 인식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평가를 국민들로부터도 끊임없이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 현직 모두가 "경찰다운 경찰로 늘 새롭게 거듭나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라는 단단한 각오로 국민과 함께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다.

### 新年 人事와 先後輩와의 만남

우리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손기태 회원(일산경우회 부회장)

### 우리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손기태 회원(일산경우회 부회장)



차조지종을 들은 후 그 교통을 찾아보니 00과출소근무 모 경장인데 아침 보조근무 시 행한 일이다. 크게 화난 선배님을 가까스레 진정시키고 경찰서 바깥으로 배웅해 드린 후 사무실에서 잠시 생각해 졌었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 문득, 2차 대전당시 연합군의 실질적 지휘자였던 영국의 "처칠" 수상이 생각났다. 그는 개회중인 의회에 참석키 위해 신호를 위반하여 급하게 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마침 교통경찰관에게 검문을 당했다. 할 수 없었다. 신분을 밝혀 우선 모면할 수밖에, 운전기사는 그 교통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미안하게 됐다. 뒤에 계신 분은 우리 '처칠' 수상님인데 의회에 참석할 시간에 쫓겨 본의 아니게 신호를 위반했는데 좀 봐 줄 수가 없을까" 하고 사정을 얘기했지만, 이 교통경찰 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 대영제국 '처칠' 수상님은 교통법규를 위반할 그러실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는 것이 아닌가.

목표이 이를 보고 있던 수상은 순간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운전기사에게 면허증을 제시, 벌금을 내도록 했다는 유명한 일화는 너무나 인구에 회자(膾炙)되어있는 진부한 얘기다.

우리의 경우는 어땠는가. "과거 서울에서 경찰서장을 지내신 분이려면 더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지요" 빈정거리는 말투와 함께 기여이 스티커를 발부한 그 경찰!(아니! 그의 스티커를 발부한 정당한 업무 집행을 나무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에 격분하여 경찰서장까지 지내신 분이 체면을 가리키지 않고 할레벌떡 경찰서까지 찾아와 그 경찰을 엄중 문책해 달라신다?

아무리 동, 서양문화의 차이이지만 이럴 경우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요. 새해에도 역시 귀에 익은 "전, 현직 유대강화"란 말을 연중행사처럼 반주(反芻)해야 할까? 아니다. 다음 주, 전 직원 참석하는 정기조회시에 내 꼭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사례를 가슴 깊이 뜨겁게 불러일으키고야 말리라!

우선, 직원들을 돌려보내고 사유를 들어보내 기가 막힌 사유였다. 그 분과 같이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오래전 서울시대 모 경찰서장을 하시다가 퇴임하신 경찰의 대선배이자(경우회원) 훌륭한 분이런 걸 알았다. 사유인즉, 아침 일찍 차를 손수 운전하고 부인과 함께 이곳 00교차로에서 유턴하고자 하는데 동일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앞 차 들이 많기에 할 수 없이 미처 중앙선 끝까지 못 가고 약 1메타를 걸치고 유턴 하다가 그때 마침 교통경찰에게 걸렸다는 것이다. 순간 후회하면서

"내가 이곳 전직 경찰서장이고 중앙선을 걸친 것이 부득이한 일이었으므로 한번 봐 달라"고 하니 이 친구는 말 "전직 경찰서장이면 더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지요" 하면서 면허증을 달라기에 주니 아무 말 없이 중앙선침범으로 스티커를 발부 하드란다.

"아니, 이럴 수가?" 뜻밖의 태도에 할 말을 잊고 멍하니 있던 중 그는 태연히 아무 말 없이 뒤를 돌아서 그냥 가 버렸다. 순간 부인에게도 창피하고 뚫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관할 경찰서 경무과장을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 X를 찾아 크게 질책해 달라"는 것이었다.

### 罰의 格下

辛文善 (前 고등학교 교사)



김해에 사는 막내아들에서 난 세 살짜리 손자가 보고 싶다며 졸라대는 아내의 극성을 들어 주기로 하고 집을 나섰다.

어제 저녁 계모임에 갔다가 음식을 잘 못 먹었는지 배에서는 돌담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지만 무더운 날씨 대구 지역을 빠져 나간다는 마음에 가슴은 부풀어 있었다.

국도를 따라 청도, 밀양을 거쳐 진영읍을 지날 때 까지만 해도 배소리만 요란하고 아무 탈 없다가 한림에 접어들면서 아랫배가 몹시 아프기 시작하여 금방이라도 쏟아 내릴 것만 같아 적당한 곳을 찾기 시작했으나 마땅한 곳이 없었다.

그때 머리에 스치는 곳이 삼계동 사거리 주유소가 생각나니 규정된 속도로 달리면서 무사한가, 혹시 중간에서... 아랫배는 차 의자에 내려앉은 듯 아프고 오직 생각나는 곳은 한 곳 뿐이다.

삼계동 사거리, 교통 신호가 황색인 데도 불구하고 진입하고 말았다. 아니나 다를까 호각소리와 함께 교통 경찰관이 차를 세운다.

교통 위반 보다 더 급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유소까지 가서 차를 세워 놓고 뒤에서 경찰관이 부르는 소리로

무시한 채 영금영금 기다리며 목적 장소에서 시원하게 불의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몇 초의 위기를 못 참아 약간의 찻집한 곳이 있어 여정정한 걸음으로 차 앞에 오니 아내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경찰관이 나를 향해 거수경례를 한다.

나도 그래서야 경찰관의 인상을 바라 볼 수 있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목례를 하니 이미 준비된 용지를 주며 '안전띠 미착용입니다.' 한다. '안전띠' 하고 내가 되물으니 '허허!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사람은 다 안전띠 미착용이잖아?' 하며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주는 과태료 용지를, 나도 웃고 받으며 고맙다고 인사했다.

신호 위반 죄에서 안전띠 미착용 벌로 격하가 되어서 반갑고 고미운 것이 아니라 그 보다 운전자의 형편도 배려하면서 직무 수행하는 경찰관에게서 진심으로 고개가 숙여진다.

적발과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계도에 목적을 두고 이 무더운 여름 날씨가 땀 흘려 교통 지도를 하는 경찰관의 진실된 모습을 보니 비싼 화장실 사용료는 내었지만 내 가슴이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죄를 짓는 자에게 상응되는 벌은 줘야 하겠지만 때에 따라선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여유와 여유를 가지고 오늘도 흠뻑 마시며 교통 지도에 최선을 다하는 김해 경찰서 소속 이름 모를 경찰관의 훌륭한 처사와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참모습을 보았다.

올유년 새해에 혹시 사적으로 만날 기회가 되었으면 차 한 잔 대접하고 싶고 그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길 바랄뿐이다.

### 국가 보안법 폐지는 時機尙早

황하성 회원 (충북 옥천 경우회)

「국가 보안법은 과거 독재정권이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심히 우려된다.

필자는 재향군인 회원이나 경우회원의 입장이 아니라 민주주의 수호와 자유를 수호해야 되겠다고 강력히 열광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다.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6·25 남침을 경험한 사람이면 누구나 통탄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김동길 교수님의 특별기고 내용에 의하면 대한민국에는 많은 북한 간첩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 보안법이 있어도 간첩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 법마저 폐기한다면 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수많은 목숨을 잃어가면서 지켜온 이 나라의 체제는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 아닌가? 대법원에서 위법이 아니고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는데도 노대통령은 법(法)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닌가?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려면 우선 남북의 대치상태가 해소되어야 한다. 남북이 총부리를 맞대고 휴전선이 존재하는 한 국가 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이다.

### 삶의 햇살을...

#### 10년 전 살인사건 해결 경찰관...간암 투병

1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살인사건의 범인을 끈질긴 노력으로 검거했던 경찰관이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아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서천경찰서 형사계 감식담당 장영현(42세)경사는 지난해 12월 서천읍내 주점 '은비정'에서 1994년 발생한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을 10년 만에 검거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져 시민과 네티즌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지난해 11월부터 허리가 불편했던 장경사는 12월 29일 서울 경찰병원을 찾았고 그의 가족들은 뜻밖에도 "환자가 급성간암 말기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

가족들은 "오래만에 쉬어서 너무 좋다"는 장경사의 말을 듣고 차마 "간암 말기라 손을 쓸 수 없다"는 말을 못해 안타까워하다 지난 19일에서야 이같은 사실을 본인에게 알렸다.

장경사는 자신의 병명이 간경화인 줄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식사도 하지 못하고,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에 시달려 자신

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던 듯 답답하게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다.

장경사의 아내 우 모(40세)씨는 "남편은 새벽 1시에도 딸(15세, 10세)들이 먹고 싶다고 있다고 하면 밖에 나갔다가 우 정도로 한 없이 자상한 사람"이라며 "평생 일밖에 모르고 열심히 살았은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며 눈물을 쏟았다.

서천서 동료들은 "장경사는 1998년부터 혼자 감식 업무를 하면서 밤낮없이 사건에 매달려왔고, 은비정 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한 정말 아까운 인제"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 서천에서 4명이 숨진 'Y가센터 방화살인사건' 때문에 장경사의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했던 것 같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인을 잡기 위해 증거물에서 나온 지문을 매일 서천 주민들의 지문과 대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경사는 지난해 초 문서고에서 '1994년 미제사건 파일'을 찾아내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았던 지문을 재검정, 사건 당시 주민등록증이 없어 밝혀지지 않았던 살인사건 피의자 김 모(30세)씨를 검거했지만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풀어

### 赤色燈

#### 경찰관, 한밤 술집서 행패

30대 경찰관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목의를 빚고 있다.

최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전 0시 30분께 광양시 광양읍 모 유흥주점에서 광양경찰서 수사과 A(34세) 경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광양시청 일용직 공무원 B(24세)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경장은 테이블을 뒤집고 병과 컵을 깨는 등 기물을 파손하는가 하면 이를 말리던 주점 여주인과 손님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경장은 업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읍지구대 동료 경찰관들이 연행하려 하자 '너희들이 뭐냐'며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 경장은 시청 업무를 보면서 알게된 B씨 등 3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술집을 찾았고 술자리에 자신이 다니던 체육관의 관장 등 2명이 합석했으며 다른 일행이 간 뒤 B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경찰서 관계자는 "A 경장이 만취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점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으며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상황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곧 절차에 따라 A 경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민원해결 대가로 뇌물받은 경찰관 영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수, 주임검사 이기선)는 민원해결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 모 경찰서 김 모(49세)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97년 3월경 부산시 금정구 K건 설로부터 아파트건립과 관련해 근처 사찰에서 제기하는 민원을 잘 해결해주는 대가로 분양가 1억2000여만원인 아파트 1채를 분양 받은 뒤 6천400여만원만 내고 나머지 3천8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경우신문 원고모집 ☎ 02-2234-1881